

한국판 조절초점 척도 타당화 연구*

김 세 나¹⁾ 표 두 미¹⁾ 이 지 선¹⁾
이 준 기¹⁾ 민 준 호¹⁾ 신 강 현²⁾ 김 경 일^{2),†}

¹⁾아주대학교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IT심리학과,

²⁾아주대학교 심리학과

Higgins(1997)는 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동기인 조절초점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Higgins, Friedman, Harlow, Idson, Ayduk, Taylor(2001)가 제작한 성향적인(chronic)1) 조절초점 척도인 RFQ(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RFQ의 요인구조 탐색을 위해 대학생 208명(연구 1-a)과 225명(연구 1-b)의 설문자료를 각각 수집하고 두 번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의 정의와 요인분석 결과를 감안해 2문항을 제외한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a에서는 274명의 대학생 자료를 재표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1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입증되었다. 연구 2-b에서는 관련 구성개념과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대학생 12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준거변인을 설명하는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주요어 : 조절초점, 향상초점, 예방초점, 만성적 조절초점

* Higgins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표현인 “chronic”이 주로 “만성적인”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전환의 특성을 언급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성향적인”으로 대체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196).

† 교신저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kyungilkim@ajou.ac.kr

인간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건의 결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원인과 상황적인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도 다양한 상황적인 변수들을 제외하고 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한다면 꽤나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질이 행동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더 유용할 수 있다(Fleeson, 2004).

인간의 성향적 특질로는 성격이 있으며, 성격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도구로 대표적인 성격 5요인(Big 5) 검사가 있다. Big 5는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도영과 유태용(2002)은 성격 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 및 과업수행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성실성이 전반적으로 맥락수행을 높게 설명하였으며, 성실성은 과업수행을 높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서경현과 김정호, 그리고 유제민(2009)에서는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이 삶의 동기를,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삶의 만족을, 성실성과 외향성이 삶의 기대를 높게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주관적 행복 수준을 높게 예측해 주었다.

Big 5 검사가 확장된 HEXACO는 정직/겸손성이라는 하나의 성격변인을 추가하고 요인을 재구성하여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아와 이종구(2010)는 HEXACO와 사고양식(thinking style)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개방성은 자기방식을 고수하는 입법형과, 성실성과 정서성은 규칙을 잘 따르는 행정형과 각각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성실성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법/부분형과, 외향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두형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외향성, 원만성, 정서성은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외부형과, 개방성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내부형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개방성은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는 자유형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의 동기 또한 개인이 살아온 인생의 축적된 결과물로 ‘성향’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Higgins(1997)가 제안한 조절초점은 2가지 동기적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축적된 삶의 양식에 따라서 동기의 조절유형을 보여준다. 조절초점은 원하는 최종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뉜다. 항상초점은 원하는 최종상태가 희망과 소망, 또는 강한 이상(ideal)으로 표현되며, 예방초점은 원하는 최종상태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표현된다. 항상초점인 사람은 진보와 성장을 우선시하여 원하는 최종결과와 부합하는 사건에 접근하는 진보적 경향성을 갖고 있고, 도전을 즐기고 위험편향(risky bias: yes라고 말하거나 행동을 떠맡으려는 경향)이 있다. 예방초점인 사람은 책임져야 할 의무와 안전을 우선시하여 원하는 최종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회피하는 경계적 경향성을 갖고 있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보수편향(conservative bias: no라고 말하거나 행동을 떠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적(chronic) 조절초점은 유전적인 영향과 양육, 인생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Higgins, 1998).

성향적으로 나타나는 조절초점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조절초점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를 상황적 초점(situation focus)라 부르며, 개인의 목표와 그 목표를 수행하는 환경에 따라 유발된다. 긍정적인 결과의 존재/부재에 따라 유발되는 항상초점과 부정적인 결과의 존재/부재에 따라 유발되는 예방초점으로 나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이 부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시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긍정적인 결과의 존재/부재일 때 항상초점인 사람이 예방초점에 비해 더 설득이 잘 되고, 메시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결과의 존재/부재일 때 예방초점인 사람이 항상

초점에 비해 더 설득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esario, Grant, Higgins, 2004).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Keller와 Bless(2006)의 연구에서는 성향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조절초점이 일치할 때 더 나은 수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in, Higgins, Montes, 그리고 Estourget(2005)의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추상적일 때 항상 초점이 예방초점 보다는 더 설득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어떤 상황과 정서 등이 조절초점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조절초점의 성향 척도는 조절초점 이론을 수립한 Higgins 등(2001)이 제작한 RFQ(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와 Lockwood, Jordan, 그리고 Kunda(2002)가 제작한 GRFM(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RFQ는 개인사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동기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절초점 척도인 GRFM은 참조점으로써 조절초점을 구분하였다.

Summerville과 Roese(2008)는 조절초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참조점 해석으로써 목표 도달을 위해서 현재 상태와 최종 상태를 비교해가며, 획득을 중심(이익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이 항상초점, 손실을 중심(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이 예방초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안내 해석으로 목표가 열망이나 책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한 것이다. 항상초점은 포부, 이상, 야심과 같은 성취에 따라 조절되며 이상적 자기와 관련된다. 예방초점은 의무, 책임과 같은 충족에 따라 조절되며 의무적 자기와 관련된다. GRFM의 경우 대부분 학문적 성취에 따른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획득에 초점을 맞춘 삶이 있는지 손실에 초점을 맞춘 삶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RFQ의 경우 자기안내 해석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문항이 구성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성취와 충족 여부를 묻고 있다. Higgins의 조절초점이론의 취지는 양육-안전 중심, 즉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

이 양육 중심이었다면 항상초점일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 중심이었다면 예방초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Higgins, 1997).

따라서 참조점을 중심으로 조절초점을 구분한 GRFM은 Higgins가 주장하는 조절초점의 일부분만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GRFM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문항을 제거한다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시 요인의 구조는 확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RFQ는 Higgins 등(2001)의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Higgins 본인의 조절초점 이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척도를 타당화할 경우 연구의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표준화가 되지 않은 RFQ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계적 절차의 까다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1-a: 탐색적 요인분석

Higgins 등(2001)이 개발한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RFQ) 척도를 심리학 박사 2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연구원 3인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 능통자에게 번안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국간 문화차이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단순 번역보다는 우리 문화권 내에서 적합한 의미를 담도록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척도의 경우 총 11 문항 중 7문항(1, 2, 4, 6, 8, 9, 11)이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7문항을 그대로 역문항으로 번안했을 때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항 9번과 11번의 경우 원 척도에서 갖는 의미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9번을 역문항 번안 시,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하려할 때, 나는 내가 이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이다. 우선 문장이 길어서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문항의 취지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지 보다는 인생의 결과물이 ‘실패’에 더 집중해서 문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정반응 문항으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11(향상초점)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흥미를 끌거나 동기화시켜서 노력하게 만드는 취미나 활동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다. 이 문장에서 쓰인 ‘취미나 활동’이라는 단어는 설

문의 대상이 되었던 20대에게 ‘능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입사 시 개인의 취미가 또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흥미를 끌만한 취미나 활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항 역시 정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후 수정문항과 본 문항을 그대로 해석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안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절차는 본

표 1. RFQ 원문항과 한국어 번역문항

문항	원문항	초점	번역문항
1	Compared to most people, are you typically unable to get what you want out of life? (역문항)	향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웠습니까? (역문항)
2	Growing up, would you ever “cross the line” by doing things that your parents would not tolerate? (역문항)	예방	고교 졸업 전까지 당신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역문항)
3	How often have you accomplished things that got you “psyched” to work even harder?	향상	당신은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까?
4	Did you get on you parents' nerves often when you are growing up? (역문항)	예방	고교 졸업 전까지 당신은 부모님이 화낼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역문항)
5	How often did you obey rules and regu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by your parents?	예방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얼마나 따랐습니까?
6	Growing up, did you ever act in ways that you parents thought were objectionable? (역문항)	예방	성장 시에 당신은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역문항)
7	Do you often do well at different things that you try?	향상	당신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은 잘 마무리 되는 편입니까?
8	Not being careful enough has gotten me into trouble at times. (역문항)	예방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신경쓰지 않아서 곤란해지거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역문항)
9	When it comes to achieving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me, I find that I don't perform as well as I ideally would like to do. (역문항)	향상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하는 편입니까?
10	I feel like I have mad progress toward being successful in my life.	향상	당신의 삶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11	I have found very few hobbies or activities in my life that capture my interest or motivate me to put effort into them. (역문항)	향상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습니까?

척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10명의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문항을 각각 보여주고 자연스러움 및 이해도에 대해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정문항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수정문항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경기도 소재 A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20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RFQ) 척도의 한국어 번안본 11문항 전체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절차

연구는 A대학 내에 위치한 심리학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에서 설문을 통해 진행 되었다. 설문은 한 회기에 최대 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학과 내규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과목의 연구 참여 점수를 받았다.

결과

한국판 RFQ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신뢰도와 기본 가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RFQ 전체 척도와 항상 초점의 하위척도 간 내적합치도가 권장기준인 .7(Guilford, 1956; Nunnally, 1978)에 근접하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a_{전체} = .655$, $a_{항상초점}$

표 2. 한국판 조절초점척도의 1차, 2차 문항분석 결과

	역문항	1차 탐색적 요인분석				2차 탐색적 요인분석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	내적 합치도 a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	내적 합치도 a
항상초점					.632 (.73)				.706 (.73)
문항1	O	3.245	.979	.162					
문항3		3.755	.830	.420		3.778	.679	.340	
문항7		3.423	.842	.388		3.500	.805	.566	
문항9		3.303	.840	.415		3.273	.833	.491	
문항10		3.524	.851	.585		3.416	.817	.571	
문항11		3.615	1.057	.284		3.556	.993	.380	
예방초점					.741				.862
문항2	O	3.981	1.125	.567		4.053	1.060	.734	
문항4	O	3.327	1.113	.681		3.480	1.053	.748	
문항5		3.413	.923	.412		3.480	.772	.643	
문항6	O	3.385	.976	.608		3.551	.977	.739	
문항8	O	2.957	.763	.262					

=.632), 예방초점 하위척도와와의 내적합치도는 .741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들과 전체문항 간 상관은 항상초점은 1번 문항($r=.162$)을 제외하고는 .284~.585 범위 내에 있었고, 예방초점은 8번 문항($r=.262$)을 제외하고는 .412~.681 범위 내에 있었다.

다음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과 KMO 수치 확인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6)=409.959, p<.001; KMO=.745$).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기법으로는 심리학 척도 타당화에 적합한 공동요인분석 중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적용이 용이한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심리적 해석의 의미나 원 척도와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2개 요인만을 가정하였다. 요인 간 회전은 RFQ 원척도개발에서 사용한 것처럼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이용하여 사교회전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요인과 개별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다. 2개의 요인은 전체 척도 변량

의 45.614%(예방초점=24.70%, 항상초점=20.92%)를 설명하고 있었다.

Gorsuch(1983)에 의하면 전체 문항이 20개 이상이 되어야 합리적인 communality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선정 시 communality값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신뢰도와 요인부하량, 그리고 문항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문항-전체 간 상관을 검토하였을 때 문항1(항상초점)과 문항8(예방초점)이 기준 값인 .40(Bayliss, Gandek, Bungay, Sugano, Hsu, & Ware, 1997)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Bayliss 등(1997)과 Tabachnick과 Fidell(2001)은 한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최소 요인부하량으로 .32를 추천하는데 문항1(항상초점)의 요인부하량은 .236으로 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8(예방초점)은 두 요인에 모두 적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초점문항에 더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앞서 통계치 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항들의 내용을

표 3. 한국판 조절초점척도 1차 탐색적 요인분석(연구 1-a) 결과

역문항	communality	요인 1 (예방초점) 요인부하량	요인 2 (항상초점) 요인부하량
항상초점			
문항1	.065		.236(.65)
문항3	.330		.540(.37)
문항7	.288		.506(.54)
문항9	.306		.563(.51)
문항10	.540		.738(.81)
문항11	.176		.392(.53)
예방초점			
문항2	.457	.690(.80)	
문항4	.707	.823(.65)	
문항5	.223	.473(.56)	
문항6	.563	.714(.84)	
문항8	.210	.310(.55)	.381(.55)

* ()는 원척도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검토하였다. 먼저 문항1(향상초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웠습니까?”로 역문항이었다. 이러한 맥락은 ‘성취’와 그 성취를 달성한 경험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는 특정 상황에 집중하도록 집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향상동기 외 제3의 요인, 즉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라는 상황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미권의 개인주의에 비해 집단주의인 한국에서는 주변 사람을 개인의 내적 판단 기준으로 포함하는 상황이 특히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문항8(예방초점)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아서 곤란해지거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이다. 실수나 오류를 방지하려는 예방초점의 성향을 표현한 문항으로, 성장과정 중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러한 예방적 성향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예방초점의 다른 문항들이 성장기와 그 과정에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모님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충분히 신경쓰지 않아서’라는 특정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원문항1과 유사하게 제3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항7(향상초점)과 문항11(향상초점)은 추천되는 문항-전체 상관 값인 .40(Bayliss et al., 1997)보다 작았지만 각각의 회전된 요인부하량이 추천되는 최소값인 .32를 넘어서며 문항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1문항 중 2문항(문항1-향상초점, 문항8-예방초점)을 제외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b: 문항제거 후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1-a 결과 두 문항을 제거한 9문항으로 재

표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참가자

경기도 소재 A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2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RFQ) 척도의 총 11문항 중 2문항을 제거한 9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절차

문항제거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실험의 절차는 연구 1-a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결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내적합치도와 문항-전체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내적 합치도(Chrobach's α)는 .709로, 권장되는 내적합치도인 .70(Guilford, 1956; Nunnally, 1978)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요인별로는 향상초점이 .706, 예방초점이 .852로써, 원척도의 .73과 .80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별 문항들과 전체 문항 간 상관은 향상초점 문항은 .340~.571 범위 내에 있었고, 예방초점 문항은 .643~.748 범위 내에 있었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chi^2(55)=759.949, p<.001; KMO=.774$). 연구 1-a와 마찬가지로 주축요인 추출법과 직접 오블리민을 이용해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4). 2개의 요인은 전체 척도 변량의 58.469%(예방초점=32.71%, 향상초점=25.7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 값이 기준치보다 낮은 문항이 2개(문항3-향상초점, 문항11-향상초점)가 있

표 4. 한국판 조절초점척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연구 1-b) 결과

역문항	communality	요인 1 (예방초점) 요인부하량	요인 2 (항상초점) 요인부하량
항상초점			
문항3	.153		.387(.37)
문항7	.512		.711(.54)
문항9	.472		.652(.51)
문항10	.497		.706(.81)
문항11	.190		.435(.53)
예방초점			
문항2	O .655	.809(.80)	
문항4	O .678	.824(.65)	
문항5	.477	.688(.56)	
문항6	O .675	.818(.84)	

* ()는 원척도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었다. 문항3의 경우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2로 안정적이었고, 두 차례의 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모두 .32를 넘었다. 또한 문항을 검토한 결과, 성장 시에는 보통 부모가 만들어놓은 규칙과 통제가 ‘자신의 의무’가 되므로, 이를 물어보는 것은 의무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항상초점) 역시 요인부하량이 .32를 넘었고, 문항분석 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부모님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역산 시 항상초점의 의미를 적절히 담고 있는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논의

Higgins 등(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추출된 두 요인은 각각 29%와 21%로 항상초점이 예방초점에 비해 더 높은 설명변량을 차지했다. 부적절한 문항을 걸러낸 연구1-b의 경우 비록 전체 설명변량은 58.47%로 Higgins 등

(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50%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지만, 본 연구1-a와 1-b의 두 차례에 걸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예방초점이 항상초점에 비해 설명변량이 더 높고 요인부하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1-a: 항상초점 20.92%, 예방초점 24.70%; 연구1-b: 항상초점 25.76%, 예방초점 32.71%).

요인분석 결과는 구성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연구에서의 결과 차이는 수렴되는 측면은 있는 반면에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외견 차이를 보인다. 즉, 조절초점에 관한 두 연구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통해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성향적 속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독립된 판단만을 근거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맥락에서 정서를 경험, 해석, 그리고 이해하는 문화적 규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김정운, 2001; Mauro, Sato, & Tucker, 1992). 특히 한국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와 체면에 기반한 집단주의와

사회가 규정하는 바람직성을 갖추도록 하는 압력이 강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은 규범과 의무, 책무에 초점을 맞춘 인지를 하고 그것이 많은 사회적 행동을 규정한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려하며 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집단의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한성열,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 심경섭, 2015, pp. 134; Triandis, 2001). 따라서 이러한 반대 양상의 결과는 규범과 처벌에 집중하는 속성으로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한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추출에 대해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a: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RFQ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경기도 소재 A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274명(남자 108명, 여자16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연구 1-b와 같다.

절차

절차는 연구 1과 같다.

결과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5. 측정모형의 전반적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지수	χ^2	CFI	NFI	TLI	RMSEA
측정모형	57.639	.954	.921	.937	.067

*** $p < .001$

RFQ척도의 문항1(항상초점)과 문항8(예방초점)을 제거한 9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 프로그램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개별문항들은 독립적으로 항상 및 예방 차원을 측정한다고 예측하는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RFQ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와 문항-전체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내적 합치도(Chrobach's ω)는 .714로 권장수준인 .70(Guilford, 1956; Nunnally, 1978)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요인별로는 항상초점은 .718, 예방초점은 .817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신뢰도 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RFQ척도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수준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분산추출지수(AVE)¹⁾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²⁾

- 1)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단일 구성개념 내 문항들의 공통분산의 추정량이다(Fornell&Larker, 1981). 해당 구성개념에 묶인 문항들의 전체 분산 중 구성개념 추정에 사용된 분산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측정오차와도 관련이 있고(Dillon&Goldstein, 1984), 구성개념을 향해 측정지표가 얼마나 잘 뭉치는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좁은 의미의 수렴타당도를 양화시킨 지수이다(Ping, 2005). 최근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는 척도의 구성개념 추정 시에 척도 내 문항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
- 2)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혹은 composite reliability)는 측정지표(문항)로부터 추정된 구성개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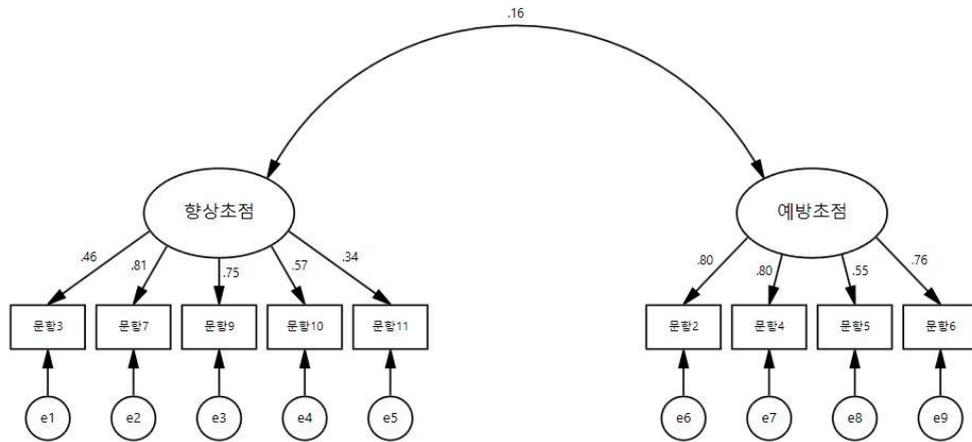


그림 1. RFQ 척도의 측정모형

표 6. 측정모형의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구성 개념	지표	요인 부하량	분산 추출지수	개념 신뢰도
항상 초점	문항3	.459		.733
	문항7	.811		
	문항9	.754	.375	
	문항10	.566		
	문항11	.340		
예방 초점	문항2	.795		.822
	문항4	.801	.540	
	문항5	.554		
	문항6	.761		

신뢰도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뢰도(cronbach's Alpha와 같은)의 경우 신뢰도 산출을 위해 모든 측정문항들을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같고 모든 측정오차가 동등하다고 제약하기 때문에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기 쉽다(Bollen, 1989; Raykov, 1997, 1998a). 하지만 구성개념에 개별문항이 기여하는 정도(요인부하량)가 각각 다르고 관여하는 측정오차 역시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인부하량을 산출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할 때 보다 정확한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다 (Fornell&Larcker, 1981).

값을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이 항상초점의 분산추출지수는 기준 값 .50(Fornell & Lacker, 1981)보다 낮았으며, 개념신뢰도는 기준 값 .70(Fornell & Lacker, 1981)보다 높게 나타났다(AVE=.448, construct reliability=.873). 반면 예방초점의 분산추출지수와 개념신뢰도 모두 기준 값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AVE=.540, construct reliability=.822).

논의

성향적 조절초점에 관한 Lanaj, Chang, & Johnson(2012)의 메타연구에서는 모두 125개의 1차 연구를 수집하여 항상초점과 예방초점과 상관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과 확신구간(credibility interval)을 추정하였다. 신뢰구간의 경우 개별 연구의 표본크기만을 가중(sample weighted)한 값으로 실제 연구에서 관측한 크기와 유사한데 그 값이 .04~.12로 대체로 약한 정적 상관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확신구간의 경우 관측한 변인의 평균값 간의 상관이 아니라 측정오차(대체로 신뢰도 값의 역수)를 교정하여 연구자들이 가정하는 구성개념들 간의 진정한 관계성(true correlation)을 추정한 값인데, 그 범위가 -.4

0~.61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의 관측상관 역시 측정오차를 교정할 경우 대략 .2~.3의 상관값을 갖기 때문에 범주에서 중상위 지점에 해당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관을 높이는 명확한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단일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설문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방법효과(method effect)의 영향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연구 2-b: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연구 2-b에서는 RFQ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RFQ척도와 함께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를 측정하는 BIS/BAS 척도, HEXACO의 6개 요인 중 외향성 및 정서성 문항, 자아존중감 척도, 자기해석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BIS/BAS 척도는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 후 타당화한 척도로 개인의 행동 활성화체계와 억제체계를 측정하며, 이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최종 상태에 다가가기 위한 접근적 동기 성향에는 행동활성화 체계, 긍정적 정서성, 외향성 등이 관련되는 반면, 원하는 최종 상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려는 동기 성향으로는 행동억제체계, 부정적 정서성 등이 관련된다. 접근적

표 7. RFQ, BIS/BAS, HEXACO, 자아존중감, 자기해석, 자기효능감 척도 기술통계표 (연구 2-b)

척도	남성 N=108		여성 N=166		전체 N=27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RFQ						
항상초점	17.45	2.92	16.75	2.93	17.03	2.94
예방초점	14.40	3.25	14.93	2.95	14.72	3.08
BIS/BAS						
BIS	19.74	3.36	21.23	3.31	20.64	3.40
BAS 보상민감	15.70	2.38	15.78	2.17	15.75	2.25
BAS 추동	10.64	2.31	9.81	2.38	10.14	2.38
BAS 재미추구	12.09	1.72	11.82	2.04	11.93	1.92
HEXACO						
정서성(E)	49.91	7.19	55.70	6.69	53.42	7.44
외향성(X)	53.16	9.34	52.06	9.45	52.49	9.40
자아존중감						
자기해석						
독립적 자기	33.87	4.76	32.11	4.99	32.80	4.97
상호의존적 자기	31.57	5.24	30.50	5.35	30.92	5.32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56.05	8.65	52.78	9.36	54.07	9.21
사회적 자기효능감	19.59	3.68	18.74	4.32	19.08	4.09

동기성향은 이상적인 결과에 다가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항상초점과 대응되는 반면, 예방적 동기 성향은 책임, 의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예방초점과 상응한다(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Crowe & Higgins, 1997; Elliot & Thrash, 2002, 2010; Grant & Higgins, 2003; Ouschan, Boldero, Kashinma, Wakimoto, & Kashinma, 2007; Summerville & Rose, 2008). 또한 Ouschan 등(2007)의 연구에서는 RFSS척도와³⁾ BAS/BIS의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항상초점 전략지향은 BAS보상민감, 추동, 재미추구와 정적인 상관을 예방초점 전략지향은 BIS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McGregor, Gailliot, Vasques, 그리고, Nash(2007)의 연구에서도 항상초점과 BAS추동, 예방초점과 BIS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방초점은 행동억제체계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고, RFQ의 항상초점은 행동활성화 체계의 하위 구성개념인 보상민감, 추동, 재미추구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태용, 이기범, 그리고 Ashton (2004)이 타당화한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 중 외향성 및 정서성 문항을 RFQ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기거나, 열정적인 성격특성을 말한다(Costa & McCrae, 1985). 다시 말하면 외향적인 개인은 주변 상황에 관여를 더욱 많이 하며, 이는 접근적인 기질로 설명할 수 있다(Gorman, Meriac, Overstreet, Apodaca, McIntyre, Park, & Godbey, 2012). 항상초점은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접근적인 열망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따라서 자신의 주변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므로 항상초점과 외향성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ggins(1989)는 항상초점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경로 중 하나가 외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Gorman 등(2012)은 실제로 외향성과 항상초점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따라서 외향성은 항상초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성은 두려움, 불안함, 무서움, 예민함 등을 일컫는 성격 특성으로, 성격 5요인 모델의 정서적 안정성과 유사한 개념이다(유태용, 이기범 & Ashton, 2004). 정서성 안정성이 높은 개인은 일 혹은 수행에 있어서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한다(Gorman et al., 2012). 예방초점 또한 개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따라서 정서성과 예방초점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ggins(1989)는 정서적 안정성과 예방초점은 실패와 관련된 정서로 특징지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한다. 또한 Gorman 등(2012)은 실제로 정서적 안정성과 예방초점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따라서 예방초점과 정서성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구성개념으로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및 이상민(2009)이 타당화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기 자신을 증대시키는 결과 및 열망을 추구하려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Ferris, Rosen, Jognson, Brown, Risavy, & Heller, 2011; McGregor et al., 2007; Ouschan et al., 2007). 그리고 높은 자아존중감, 즉 자기향상 성향을 지닌 개인은 긍정적인 결과에 다가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접근적 동기가 나타난다.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 즉 자기보호 성향을 지닌 개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피하려는 동기가 나타난다

3) RFSS척도(Regulatory Focus Strategy Scale)는 성취 및 실패 예방을 위한 자기조절초점 전략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항상초점 전략지향 및 예방초점 전략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McGregor et al., 2007; Heimpel, Elliot, & Wood, 2006). 이러한 이유로 McGregor 등(2007)은 자아 존중감과 향상초점, 예방초점간의 상관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자아존중감과 향상초점이 정적인 상관을, 예방초점이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높은 자기향상 성향을 지닌 높은 RFQ의 향상초점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RFQ의 예방초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기해석척도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김민재(2010)에 의해 타당화되었다. Lee, Aaker, 그리고 Gardner(2000)는 성향 및 상황적으로 독립적 자기의 특성을 보이는 개인의 목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의 성취다. 따라서 잠재적 획득 및 성공 등과 같이 향상초점 관련 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상호 의존적 자기의 특성을 보이는 개인이 가지는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충족 및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과 같이 예방초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자기해석의 하위 개념인 독립적 자기와 RFQ의 향상초점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자기해석의 다른 하위 개념인 상호보완적 자기와 RFQ의 예방초점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홍혜영(1994)에 의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목표 및 개인의 수행능력 등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Bandura, 1991; Nicklin & Williams, 2011).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목표보다 개인의 수행능력이 높을 경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때문에 자신의 수행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수행능력이 목표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목표를 포기한다. 이는 향상초점인 개인의 성취 경험에 따라 획득 등 목표와 관련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Van-Dijk & Kluger, 2004)과 유사하다. 따라서 RFQ의 향상초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두 가지 하위 개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가자

참가자는 연구 2-a와 동일하다.

측정도구

연구 1-b와 연구 2-a에서 사용한 2문항을 제거한 RFQ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판 BIS/BAS 척도(김교현&김원식, 2001), HEXACO의 6개 요인 중 외향성 및 정서성 문항(유태웅 et al., 2004), 자아존중감 척도(이자영 et al., 2009), 자기해석 척도(양윤&김민재,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홍혜영, 1994)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절차

참가자들은 각 척도들을 무선으로 제시받았으며, 각 척도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직·간접적인 암시는 없었다. 이외 절차는 연구 1, 2와 동일하였다.

결과

RFQ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8). 예측한 바와 같이 RFQ 척도의 향상초점은 BIS/BAS 척도 중 행동활성화 체계를 측정하는 BAS의 보상민감($r=.179, p<.01$), 추동($r=.288, p<.001$), 재미추구($r=.227, p<.001$)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표 8. RFQ 척도의 하위 요인들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

척도	N	항상초점	예방초점	<i>a</i>
BIS/BAS				
BIS	274	-.237 ***	.137 *	.815
BAS				
보상민감		.179 **	.070	.717
추동		.288 ***	-.164 **	.802
재미추구		.227 ***	-.203 **	.674
HEXACO				
정서성(E)	274	-.341 ***	.065	.724
외향성(X)		.442 ***	.016	.877
자이존중감	274	.606 ***	.084	.897
자기해석				
독립적 자기	274	.332 ***	-.092	.628
상호의존적 자기		.044	.114 †	.689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274	.675 ***	.089	.887
사회적 자기효능감		.344 ***	-.036	.76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BIS의 행동억제체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237, p < .001$). 반면, RFQ의 예방초점은 BIS의 행동억제체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137, p < .05$), BAS의 추동($r = -.164, p < .01$)과 재미추구($r = -.203, p < .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RFQ의 항상초점은 HEXACO의 외향

성(X)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442, p<.001$), 정서성(E)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r=-.341, p<.001$). 반면, RFQ의 예방초점은 예상과 다르게 정서성과 상관이 없었다($r=.065, p=.724$).

RFQ의 향상초점은 자아존중감($r=.606, p<.001$), 자기해석의 독립적 자기($r=.332,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r=.675, p<.001$)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r=.344, p<.001$)과 모두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RFQ의 예방초점과 자기해석 척도의 하위요인인 상호의존적 자기와 예상한 바와 다르게 상관이 유의하지는 않았다($r=.114, p=.06$). 자기해석 척도의 다른 하위요인인 독립적 자기($r=-.092, p=.129$)를 비롯해 자기효능감 척도의 두 개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r=.089, p=.142$)과 사회적 자기효능감($r=-.039, p=.548$)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향상초점과 BAS 간 정적상관과 예방초점과 BIS 간 정적상관은 Elliot과 Thrash(2002)의 연구와 McGregor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수렴한다. 하지만 Elliot과 Thrash(2002)의 연구에서 ‘BAS-회피 기질’과 ‘BIS-접근기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고, McGregor 등의 연구에서도 ‘BAS-예방초점’과 ‘BIS-향상초점’의 교차관계에 대해서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BIS가 처벌에 민감한 속성으로 보상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러한 교차 관계에 있어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여 결과가 상이하였다. 대안적인 설명으로는 단일 초점에 의해 반대 속성이 억압되는 이러한 표본의 연령층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이라는 연령대로 인해,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이나 국가에 비해 사회적 압력이 강해서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속성이 극화되는 영향력(Taras, Kirkman, & Steele, 2010)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외향성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모두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정서성(신경증)은 예방초점과의 관계에서 Lanaj 등(2012)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구간의 범주에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정서성이 향상초점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이나 확신구간의 범주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역시 McGregor 등(200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예방초점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해석 척도의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는 앞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신의 주관적 목표를,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회와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경향에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3: 동시 타당도

연구 3에서는 RFQ의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여가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보고식검사 상황에서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최보라(2007)가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Self-deceptive enhancement)과 인상관리(Image management)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자기 자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실제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지각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성을 말한다. 향상초점은 실제 자기(actual self: 현재 자기 자신)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 이상적으로 꿈꾸는 자신)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함으로써 조절된다(Higgins, 1997). 이 두 자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보다 정확한 실제자기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인 영역에서는 정확한 평

표 9. RFQ, 사회적 바람직성, 여가열의 척도 기술통계표 (연구 3)

척도	남성 N=47		여성 N=96		전체 N=14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RFQ						
항상초점	18.13	2.72	17.33	14.63	17.59	2.63
예방초점	14.26	3.15	14.63	3.12	14.50	3.12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기만적 고양	34.91	4.94	33.58	4.43	34.02	4.63
인상관리	32.93	7.13	35.55	7.98	34.69	7.78
여가열의	53.62	8.09	49.49	9.70	50.85	9.38

가일지라도, 항상초점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동기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상초점은 자신을 과대추정하려는 경향성이 작용하여 자기기만적 고양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와 의무적 자기(ought self;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신)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함으로써 조절된다(Higgins, 1997). 즉 예방초점의 경우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자기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방초점과 자기기만적 고양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다른 하위요소인 인상관리는 일종의 거짓말로써, 타인이 보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편향을 말한다(Paulhus, 1984). 즉,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자기를 높게 바라보는 편향이다. 앞서 실시했던 연구 3에서 예방초점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로

자신을 해석하는 개인은 예방초점 관련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Lee et al., 2000),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피하고, 자존감과 관련해서 성공보다는 실패 관련 정보에 더 집중한다(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따라서 예방초점인 개인은 자신을 상호의존적 자기로 해석하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비춰지길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초점의 경우 인상관리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대로 항상초점의 경우에는 연구 2-b에서처럼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개체로 해석하는 독립적 자기와 상관이 있었고, 상호의존적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항상초점인 개인에게는 타인이 보는 자기 자신보다는 독립적 개체로 구분되는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타인이 보는 자신을 높이는 편향인 인상관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RFQ와 행동 준거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척도는 김영재(2012)가 타당화한 여가열의 척도이다. 여가열의(leisure engagement)란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4) 연구 2-b에서 예방초점과 상호의존적 자기의 상관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r=.114, p=.060$) 정적 상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행위자의 마음을 말한다 (김영재, 2012). 열의라는 것은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의 상태로써,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상초점인 개인은 성향적으로 목표 달성과 성장을 위해 더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려는 접근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가열의 점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방초점의 경우 향상 초점과는 다르게 목적의 성취보다는 현재 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Chernev, 2004). 따라서 여가열의와는 상관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연구 2에 참여한 274명의 대학생 중 143명의 학생들(남성 47명, 여성 96명)을 대상으로 반복 설문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연구 1-b와 연구 2에서 사용한 2문항을 제거한 RFQ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최보라, 2007)와 여가열의 척도(김영재, 2012)를 사용하였다.

절차

참가자들은 각 척도들을 무선으로 제시받았으며, 각 척도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직·간접적인 암시는 없었다. 이외 절차는 연구 1, 2와 동일하였다.

결과

연구 2의 참가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2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2와 연구 3의 구성개념 측정치 간 상관분석을 통해 반복측정 신뢰도를 확인하였다($r \geq .493, p < .001$). 이외 절차는 연구 1, 2와 동일하였다. RFQ와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RFQ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RFQ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였다. RFQ와 준거변인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RFQ의 향상초점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자기기만적 고양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308, p < .001$), 인상관리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r = .075, p = .371$). 향상초점과 여가열의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474, p < .001$). 예방초점은 인상관리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400, p < .001$), 자기기만적 고양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69, p < .01$). 여가열의($r = -.004, p = .963$)와의 상관성이 없었다. 표 10에서 RFQ와 준거 변인 간의 상관분석표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RFQ의 향

표 10. RFQ, 사회적 바람직성, 여가열의 척도의 각 하위요인 상관분석표 (연구 3)

	예방초점	자기기만적 고양	인상관리	여가열의
향상초점	.058	.308***	.075	.474***
예방초점		-.269**	.400***	-.004
자기기만적 고양			-.067	.185*
인상관리				.057

* $p < .05$, ** $p < .01$, *** $p < .001$,

상초점은 사회적 바람직성 내의 자기기만적 고양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288, p<.001$), 예방초점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eta=.288, p<.05$).

또한 예방초점은 사회적 바람직성 내의 인상관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401, p<.001$), 예방초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058, p=.454$). 표 11과 표 12에서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열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RFQ의 항상초점이 여가열의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beta=.475, p<.001$)하였고, 예방초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03, p=.666$). 표 13은 여가열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논의

Elliot과 Thrash(2002)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고양편파(self-enhancement bias)는 접근기질(approach temperament)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회피기질(avoidance temperament)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항상초점의 경우 접근기질과 관련이 있고 예방초점은 회피기질과 관련이 있음(Higgins et al., 2001)이 밝혀졌다. 즉, Elliot과 Thrash(2002)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기기만적 고양에 대한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항상초점은 정적으로, 예방초점은 부적으로 유의한 예측효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Elliot과 Thrash(2002)의 연구에서 인상관리는 자기고양편파의 하위유형으로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앞서 살

표 11. 자기기만적 고양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p)	R	R ²
항상초점	.491	.390	5.089***	.418	.175
예방초점	-.148	-.174	-2.276*		

* $p<.05$, *** $p<.001$

표 12. 인상관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p)	R	R ²
항상초점	.086	.058	.750	.409	.167
예방초점	.401	.401	5.209***		

*** $p<.001$

표 13. 여가열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p)	R	R ²
항상초점	.563	.475	6.387***	.474	.224
예방초점	-.026	-.032	-.432		

*** $p<.001$

표 14. 연구 2와 연구 3 반복측정 자료의 문항 간 상관

	향상2b	향상3b	향상4b	향상5b	향상6b	예방1b	예방2b	예방3b	예방4b
향상2a	.493***	.236**	.235**	.151	.339***	.003	-.017	-.204*	.003
향상3a	.385***	.744***	.595***	.458***	.079	.185*	.188*	.064	.197*
향상4a	.244**	.595***	.609***	.414***	.227*	.290**	.144	.063	.214*
향상5a	.361***	.521***	.412***	.641***	.338***	.049	.050	-.109	.079
향상6a	.201*	.070	.193*	.255**	.695***	-.005	-.011	-.119	.024
예방1a	.044	.067	.079	.084	-.022	.732***	.669***	.462***	.630***
예방2a	.016	.166	.109	.234**	.023	.634***	.637***	.457***	.751***
예방3a	.052	.174	.196*	.091	-.083	.474***	.332***	.583***	.507***
예방4a	-.045	.058	.079	.145	.184*	.562***	.625***	.391***	.581***

* 좌하단은 연구 2, 우상단은 연구 3, 대각선은 연구 2와 연구 3의 응답 간 상관

* $p < .05$, ** $p < .01$, *** $p < .001$

퍼본 바와 같이 향상초점에 비해 예방초점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방초점화 된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타인의 바램이나 소속 단체의 규범에 따른 의무를 만족시키려는 내적 상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예방초점화된 개인이 주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므로 인상관리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논의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하위연구를 통해 한국판 조절초점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1-a에서는 RFQ 문항을 번역하고 설문 을 진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 적합치 신뢰도와 요인부하량, 내용영역을 검토 한 후 부적절한 2문항(1문항-향상, 8문항-예방)을 삭제하였다. 연구 1-b에서는 재표집을 통해 신뢰 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두 문항 이 삭제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안정적인 구조 를 나타내었다.

연구 2-a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 통계치들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 조절초점 성향 간 상관의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확인되었다. 연구 2-b와 연구 3에서는 (좁은 의미의) 구성타당 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향상초점 의 경우 자기해석의 하위구성개념인 상호의존적 자기를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들과 예측한 방향 과 동일하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예방초점의 경우 BIS, BAS의 추동 및 재미추구 를 제외한 다른 구성개념들과는 예측의 방향이 일치하지만 유의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3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연구 2의 표본 중 120명을 대상으로 3주가 경과한 후 기 말고사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설문을 재실시한 결과 성향으로서의 동기가 안정적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과 여가열의와의 관 계에서 예측한 방향대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 내어 동시타당도를 확증하였다.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 연구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조절초점 척도(RFQ)를 타당화 하였

다. 해당 척도는 인간의 안정적 특질인 성향적 동기를 측정하기에 여러 상황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 조절초점 동기보다 환경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실증 연구들에서 안정적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RFQ는 개인의 안정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과거의 성장배경과 경험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세상과의 창구 역할을 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속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상황적 경험들로부터의 추정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고 타당한 속성을 갖는다.

조절초점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조절초점”이라는 단어 검색 시 학회지와 학위논문에서 모두 500편 이상의 연구들이 해당 주제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타당화나 개발 연구가 한 편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연구들마다 구성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형태가 다르면 편파나 오류와 같은 준거 오염과 측정영역에 대한 준거결핍이 개별 연구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준거 적절성 영역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법칙론적 관계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척도 간 효과크기 차이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표본에 대해, 동시에 단일 표본에 대한 반복측정을 통해 성향적 조절초점 척도를 타당화한 본 연구는 연구의 내적·외적 타당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영미권에서 개발된 구성개념 측정도구들을 한국의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문화권에 맞는 구성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번역을 통해 척도가 개발된 문화권에서 다루는 구성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결과보다 우리 문화권의 다른 구성개념들과 갖는 관계가 더욱 신뢰롭고 타당한 관계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한계점 및 추후연구 제언

측정관련 이슈

간접적 측정방식이어도 어린시절 부모로부터의 처벌이나 혐오반응 관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수 있다. 혹은 회상에 의한 방식이라 전반적으로 향상초점 점수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점화된 표본이 많고 따라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방초점에서 변산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측정방식과 관련한 부분은 명시적인 내용을 설문을 통해 응답받았기 때문에 암묵적 측정방식과 같은 실험절차를 통해 왜곡이 적은 응답치를 얻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바람직성은 설문 응답치에서 왜곡을 가져올 요소를 탐지하는 척도로 흔히 활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성장배경에 대한 응답 왜곡 가능성을 탐지하는 측면과 동시에 타당화 대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추정된 상관관계 내 두 가지 다른 이유로 발생한 공분산이 혼합되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즉, 향상초점과 자기기만의 상관은 향상초점이라는 성향으로 인한 설명분산과 자기기만이라는 특성이 향상초점을 높이는 설명분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예방초점 역시 자기기만을 낮추고 인상관리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기만과 인상관리 성향 때문에 예방초점 응답값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분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할 때 양방향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거나 인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인과적 방향을 보다 엄격하게 밝히는 분석방법이 존재하지만(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구체화 방법(specification search)과 같은), 그 보다는 정련된 연

구 설계를 바탕으로 엄격히 통제된 실험연구가 이러한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데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표집관련 이슈

한 대학교 내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연구결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표집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살펴볼 때 경기도라는 특성과 심리학 전공수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단일 척도 타당화 연구를 위해 전국 규모의 표집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무선표집(completely random sampling)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있어 다양한 인구 구성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이 때 수도권 지역이면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학생이 유입되는 특성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한 것이 다양한 자료수집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해당 대학의 학부과정 심리학 수업은 인문·사회 계열 뿐만 아니라 이과계열(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대학과 같은)의 다양한 주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특성이 있다. 즉, 단일 대학 내에서 해당 전공은 다양한 학문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구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완전무선표집을 통해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표집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일 연구로서의 특성 때문에 개별 하위 집단이 모집단의 구성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단계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안정적 성격구조를 갖추면서 성장환경의 특성이 잘 반영된 특성이 있다. 즉, 대학 진학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

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표본이 동일한 지역색을 띄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구조 상 대학생이 되기까지 학업 이외의 환경에 다양하게 노출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역별로 구체적인(domain-specific) 조절초점 기제를 발달시키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 이외 성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같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일반화 연구는 반드시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은아, 이종구 (2010). 여성 텔레마케터의 사고양식과 성격, 맥락수행 및 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4), 755-781.

김교헌,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김도영, 유태용 (2002). 성격의 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2), 1-24.

김민재 (2010). 초점정서와 자기해석간의 일치성 및 광고 내 맥락이 공익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영재 (2012). 한국판 여가열의 척도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1(5), 549-557.

김정운 (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69-186.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최보라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성열,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 심경섭 (2015). *문화심리학*. pp.134.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ayliss, M. S., Gandek, B., Bungay, K. M., Sugano, D., Hsu, M. A., & Ware Jr, J. E. (1997). A questionnaire to assess the generic and disease-specific health outcomes of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Quality of Life Research*, 7(1), 39-55.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Cesario, J., Grant, H., & Higgins, E. T. (2004). Regulatory fit and persuasion: Transfer from "feeling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3), 388.
- Chernev, A. (2004). Goal-attribute compatibility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1), 141-150.
-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form S and form R.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17-132.
- Dillon, William R. and Matthew Goldstein (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Wiley.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erris, D. L., Rosen, C. R., Johnson, R. E., Brown, D. J., Risavy, S. D., & Heller, D. (2011). Approach or avoidance (or both?): Integrating core self evaluations within an approach/avoidance framework. *Personnel Psychology*, 64(1), 137-161.
- Fleeson, W. (2004). Moving personality beyond the person-situation debate the challenge and the opportunity of within-person variabi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2), 83-8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Gorman, C. A., Meriac, J. P., Overstreet, B. L., Apodaca, S., McIntyre, A. L., Park, P., & Godbey, J. N. (2012). A meta-analysis of the regulatory focus nomological network: Work-related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1), 160-172.
- Gorsuch, R. L. (1983). Three methods for analyzing limited time-series (N of 1) data. *Behavioral Assessment*.
- Grant, H., & Higgins, E. T. (2003). Optimism, promotion pride, and prevention pride as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2), 1521-1532.
- Guilford, J. P. (1956). The structure of intellect.

- Psychological Bulletin*, 53(4), 267.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93-136.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 Heimpel, S. A., Elliot, A. J., & Wood, J. V. (2006). Basic personality dispositions, self-esteem, and personal goals: An approach-avoidanc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4, 1293-1319.
- Keller J. & Bless H. (2006). Regulatory fit and cognitive performance: The interactive effect of chronic and situationally induced self-regulatory mechanisms on test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393-405.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
- Lanaj, Chang, & Johnson. (2012). Regulatory Focus and Work-Related Outcomes: A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98-1034.
- Lee, A. Y., Aaker, J. L., & Gardner, W. L. (2000). The pleasures and pains of distinct self-construals: The role of interdependence in regulatory foc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122-1134.
- Lockwood, P., Jordan, C. H., & Kunda, Z. (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54.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01.
- McGregor, I., Gailliot, M. T., Vasquez, N. A., & Nash, K. A. (2007). Ideological and personal zeal reactions to threat among people with high self-esteem: Motivated promotion focu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1), 1587-1599.
- Nicklin, J. M., & Williams, K. J. (2011). Self-Regulation of Goals and Performance: Effects of Discrepancy Feedback, Regulatory Focus, and Self-Efficacy. *Psychology*, 2(03), 187.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
- Ouschan, L., Boldero, J. M., Kashima, Y., Wakimoto, R., & Kashima, E. S. (2007). 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ndorsement of regulatory strate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4), 243-257.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598.
- Ping, R. A. (2005). "What is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for a latent variable interaction (or quadratic)?" [on-line paper]. <http://home.att.net/~rpingjr/ave1.doc>
- Raykov, T. (1997). Scale reliability, Cronbach's Coefficient Alpha, and violations of essential tau-equivalence with fixed congeneric component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

- 329-353.
- Raykov, T. (1998). Coefficient alpha and composite reliability with interrelated non-homogeneous item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2*, 375-385.
- Semin, G. R., Higgins, T., de Montes, L. G., Estourget, Y., & Valencia, J. F. (2005). Linguistic signatures of regulatory focus: how abstraction fits promotion more than prev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1), 36.
- Summerville, A., & Roese, N. J. (2008). Self-report measur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gulatory focus: A cautionary not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247-254.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 Taras, V., Kirkman, B. L., & Steel, P. (2010). Examining the impact of Culture's consequences: a three-decade, multilevel, meta-analytic review of Hofstede's cultural value dimen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3), 405.
- Triandis, H. C. (2001).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ast, present, and future. *The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 35-50*.
- Van-Dijk, D., & Kluger, A. N. (2004). Feedback sign effect on motivation: Is it moderated by regulatory focu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3*, 113-135.

1 차원고접수 : 2015. 06. 01.

수정원고접수 : 2015. 08. 04.

최종게재결정 : 2015. 08. 07.

A Study of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s of Regulatory Focus Scale

Sena Kim¹⁾ **Dumi Pyo¹⁾** **Jisun Lee¹⁾**
Jungi Lee¹⁾ **Junho Min¹⁾** **Kanghyeon Shin²⁾** **Kyungil Kim²⁾**

¹⁾IT Psychology, Department of Life Media, Ajou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Higgins(1997) proposed regulatory focus theory comprises two types of motivation formed by one's personal experience. In this research, the RFQ(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the chronic regulatory focus scale, developed by Higgins, Friedman, Harlow, Idson, Ayduk, and Taylor(2001), was well interpreted in Korean and validated. In study 1-a(N=208) and 1-b(N=225), corresponding factor structure was foun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wo items, however, were judged inappropriate to Korean culture through content review, then removed. In study 2-a(N=27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cceptable fit indices,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proved with BIS/BAS, HEXACO, self-esteem, self-interpretation and general self-efficacy. Lastly, In study 3(repeated measured, N=120 of study 2-b), criterion related validity was confirmed by showing that RFQ predicts social desirability, self-deceptive enhancement, image management, and leisure engagement significantly. The main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e results were well explained.

Keywords : 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chronic regulatory focus

부록 1. RFQ, BIS/BAS, HEXACO, 자아존중감, 자기해석, 자기효능감 척도의 각 하위요인 상관분석표 (연구 2-b)

	예방 초점	BIS	BAS 보상 민감	BAS 추동	BAS 재미 추구	정서성 (E)	외향성 (X)	자아 존중감	독립적 자기	상호 의존적 자기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향상초점	.110	-.237***	.179**	.288***	.227***	-.341***	.442***	.606***	.332***	.044	.675***	.344***
예방초점		.137*	.070	-.164**	-.203**	.065	.016	.084	-.092	.114	.089	-.036
BIS			.263***	-.102	-.135*	.595***	-.303***	-.412***	-.183**	183**	-.315***	-.300***
BAS 보상민감				.445***	.309***	.175**	.260***	.153*	.313***	.192**	.130*	.157**
BAS 추동					.526***	-.159**	.374***	.248***	.409***	-.004	.375***	.295***
BAS 재미추구						-.163**	.315***	.267***	.455***	.056	.243***	.203**
정서성(E)							-.204**	-.352***	-.267***	.126*	-.363***	-.247***
외향성(X)								.670***	.401***	.067	.534***	.740***
자아존중감									.299***	.027	.627***	.520***
독립적 자기										-.025	.320***	.373***
상호의존적 자기											.050	-.015
일반적 자기효능감												.437***

* $p < .05$, ** $p < .01$, *** $p < .001$,